

**2011 년 3 월 19 일 우리 한글학교 어린이들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쓴 그림편지중 편지
부분입니다. 어린이들이 쓴 그대로 적었습니다.**

- Dear Japan, Sorry about the earthquake, oil fire, and tsunami. Your homes, books, land got destroyed. (서영덕)
- Dear Japan, I hope you find a new home and I hope that you would get some food. I hope that you will survive. From Janie.
- I am sorry that your houses broke. (최서영)
- 파이팅, 친구야! (권나현)
- Dear 일본의 친구들에게. I am a student in America and I heard about your crisis. 큰 재난의 소식을 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요한)
- Dear friends in Japan: I hope you feel better and have homes and toys and games. (최원영)
- 안녕 친구야!~ 계속 힘내! 난 너에게 기도할거야. 사람들이 너의 나라로 돈 많이 기부하고 있어. 걱정마. 많이 기도하고 하느님이 너를 지켜줄거야. 희망 가지고 믿음을 가져. 나도 가질거야. 여기 미국에서 그 사고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마. 난 여기 Columbia, Maryland 에 사라. 여기도 사람들이 알아. 그 사고 다 끝날거야. 그래서 힘내! 화이팅! (권나현)
- Dear Japan: You must have suffered a lot. I feel so bad for you! I'll pray for you and hopefully you will heal greatly. I've always wanted to go to Japan. My dad went there, and he said it was amazing and beautiful. I hope I go to Japan when I'm older. Well, my name is Jia (지아) and I am from U.S. in Maryland. Please come visit. I'm currently 12 years old. Turning 13 in April. I hope you get this letter as soon as possible. 사랑해. 지아. 일본 사람, 난 기도를 할께요. 사랑해요.
- 일본 친구들에게, 재난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도와드리고 싶네요. 저는 미국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카톨릭 성당에 있는 한글학교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2011 년 3 월 19 일 최호수 드림.
- Dear People of Japan. 소식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일본의 친구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지도록 바랍니다. 2011 년 3 월 19 일. 시준으로 부터.
- Dear People of Japan, Sorry to hear about the 재난 by the 지진. 큰 재난의 소식을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I hope you have enough money to repair the damage to things like 집, 건물,

그리고 건물. And I hope all of you have enough 음식. I hope you have a good life. 2011 년 3 월 19 일. 상호드림.

- Dear Fellow Friends in 일본. I feel bad and sorry for the things that happened in your country. The thing of mother nature like the 해일 and 지진 make me angry. When I go to church, I will pray for you there. I will put my effort to donate money to you. I am Alex from America. I wish that everything gets better. 기연.
- Dear 일본 사람. 큰 재난의 소식을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해일

사회 3/22/2011 한국일보 A5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학생들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를 쓰고 있다.

“힘내야 해, 일본 친구들아”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지진피해 어린이들에 편지쓰기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교장 최규용 박사)가 지진과 쓰나미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편지 쓰기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실시된 그림 편지 쓰기 행사는 한인 어린이들이 큰 재난을 당한 같은 또래의 일본 어린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많은 어린이들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성금도 내고 싶다고 썼다. 김민지 양은 ‘하느님이 다 보호해 주실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적었으며 이지

나 양은 ‘친구들아 너희들의 집이 다 부서져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느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O.K.일거야’라고 썼다. 권나현 양은 ‘안녕 친구야 계속 힘내. 여기 미국에서 그 사고 다 알고 있어. 희망 가지고 믿음을 가져. 힘내! 파이팅!’이라고 썼다.

어린이들이 정성을 다해 완성한 그림 편지는 일본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 한국학교 교사 한지원씨와 성인반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일본인 학부모 준코 나카야마씨가 일본어로 번역, 원본과 함께 주

미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모은 성금도 그림 편지와 함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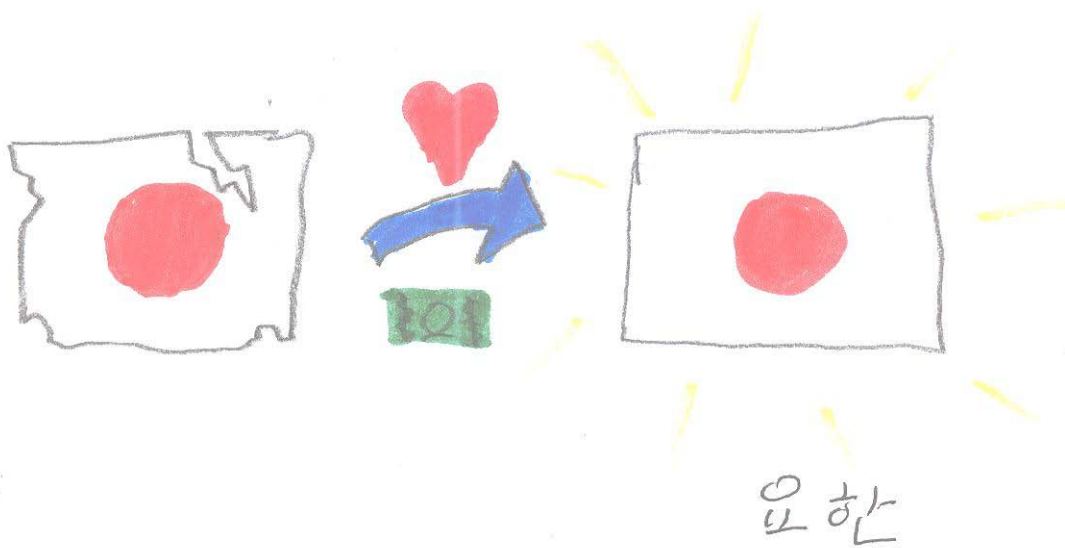
최규용 교장은 “아이들이 의외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써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도 했다”며 “그림 편지는 가능한 큰 피해가 난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달되어 우리 어린이들의 우정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was very big. 모든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I hope your family and friends are found. 2011 년 3 월 19 일 부이새 드림.

- Fellow Asians in Japan. 유감스럽습니다. 큰 재난의 소식을 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So we are trying to start a fundraiser in our school. 저는 미국 카톨릭 성당에 있는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기부금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 년 3 월 19 일 제임스 올림.
- Dear Fellows in Japan. I just heard you got striked by a 지진 and a 해일. I know how it feels. But it's okay. There are things you need and you don't. If you are upset I have activities I at the back of this letter. Hope you feel better. Teddy from U.S.A. Other side of the world.
- 일본인 친구들에게. I feel bad for you and sorry for you. and I am just sitting here and watch. I will try to help by donating money. I will try to help. Justin 성찬 올림.
- Dear Friend. My name is Benjamin. I am 11 years old. I live in the U.S. My nationality is Korean-American. I live with my Mom and Dad and my sister, Jamie. My hobbies are playing the violin and piano, baseball, basketball, tae-kwon-do, and tennis. I will visit Korea some day. When I do, I will come and visit Japan. I hope you write back! 이재훈 (Benjamin)
- 친구야, 나는 미국 동부 워싱턴 디씨에 사는 광재우야. 나는 열한살이고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야. 너는 몇살이니? 나는 실버스프링에 있는 중학교에 다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농구와 축구야. 그런데 괜찮니? 나는 괜찮기를 바래. 너와 일본에게 행운을 빌게.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마. 그럼 안녕.
- I hope you will find a new home. (이유림). My name is Jamie and I am Korean American in the U.S. I am eight years old and am a second grader. I am a girl but people think I am a boy because of my name Jamie. My favorite sports are ice skating, soccer, and basketball. I am very fast. In the future, I'd like to visit Korea and I will stop by Japan.
- 일본 친구들에게. My school is having a fundraiser and every penny we make goes to the red cross to help you guys! Sorry for all the disasters. I donated a lot of money and so did all my friends. Hope everything gets better, good luck! :) From Julia.
- 일본 사람들, 나 미안해요. 집두 없군요. 밥도 없고 쓰나미가 사람 다아보게 만들었어요. 김하늘.
- Japan, I am sorry about the disaster. But don't worry. We are going to pray for you. Don't worry, God will protect you. How old are you? I am eleven, well almost. I'm turning eleven in April.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green. No matter what, don't worry. Fortunate things will come for sure!! Sincerely, Julia Kim (김민지)
- Dear Friends, Sorry that your home is destroyed. Pray to God and everything will be O.K. From a friend, 이지나.
- I hope you find a new place to live and I'm sorry your homes got destroyed. 김주영
- Dear Japan friends, Sorry your toys, home and land is gone by a sunomi. It's o.k. no worrys you can think of the time it didn't. Your friend, 장성범
- Dear Japan, Sorry your books, homes, toys and food washed away. 바울

- Sorry for books, homes, and your flag. Did you know that there was a whirlpool in Japan? 진수.
- Children of Japan. I am so so sorry about what happened! Even though you might scared about what happened, be brave. Be healthy. We are sorry you don't have money but more of the things you lost. We are all here for you, so don't be scared. So very sorry. 김해나.
- Dear Japan. I am sorry a lot your loss from the earthquake and the tsunami. 이유진.
- Dear Japan people. I am sorry for what happened! But I hope you have not lost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your parents. You have not lost your hopes. You have gone through a hard problems but you can find the way out. I hope you are OK. Love, Lindsay 최준영.
- Dear Japan People. I'm sorry, what happened to you and what happened to your homes. I hope you get well and be safe. I'm really sorry for some that lost there parents and kids from the 쓰나미. I hope you guys get safe and have good homes. Sincerely, Yuri Yi.
- 안녕, 내가 많이 미안해. 동경 만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from 조현기.
- Smile for Japan. 배선웅
- Dear Japan, I'm sorry about all those people who died in the earthquake and tsunami. 윤정민
- 안녕, 내가 많이 미안해. 이제는 일본 or 동경 많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from 김준혁
- I hope that some people are still alive in Japan. 김경민.
-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장민이야. 너는 일본에 괜찮아? 요즘에 일본에 대해 많은 이예기를 드리. 미국에는 아씨안들이 많아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사람, 한국 사람, 하고 중국 사람을 해까려. 그런데 미국에 있으면 다른 언어를 배워서 좋아. 하지만 다른 언어를 배우면 일본어를 까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한국학교에 가는거야. 아참! 인제 다시 해일로 혹시 너 Fukushima Prefecture 에 안살아? 거기에 큰불이 났때. 그래서 너 해일에서 안죽고 살았으니까 진짜 기뻐해줘. 아니면 내가 진짜 슬플거야. 자... 인제 질문을 물어봐도 될까? 몇시에 해일이 시작했어? 안무서웠어? 나는 정말로 무서웠을 꺼같았어요. 사랑해! 장민



Japan,

I am sorry about the disaster. But don't worry, we are going to pray for you. Don't worry, God will protect you. How old are you? I am eleven, well almost, I'm turning eleven in April.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green. No matter what, don't worry. Fortunate things will come for sure!!

日本の皆さ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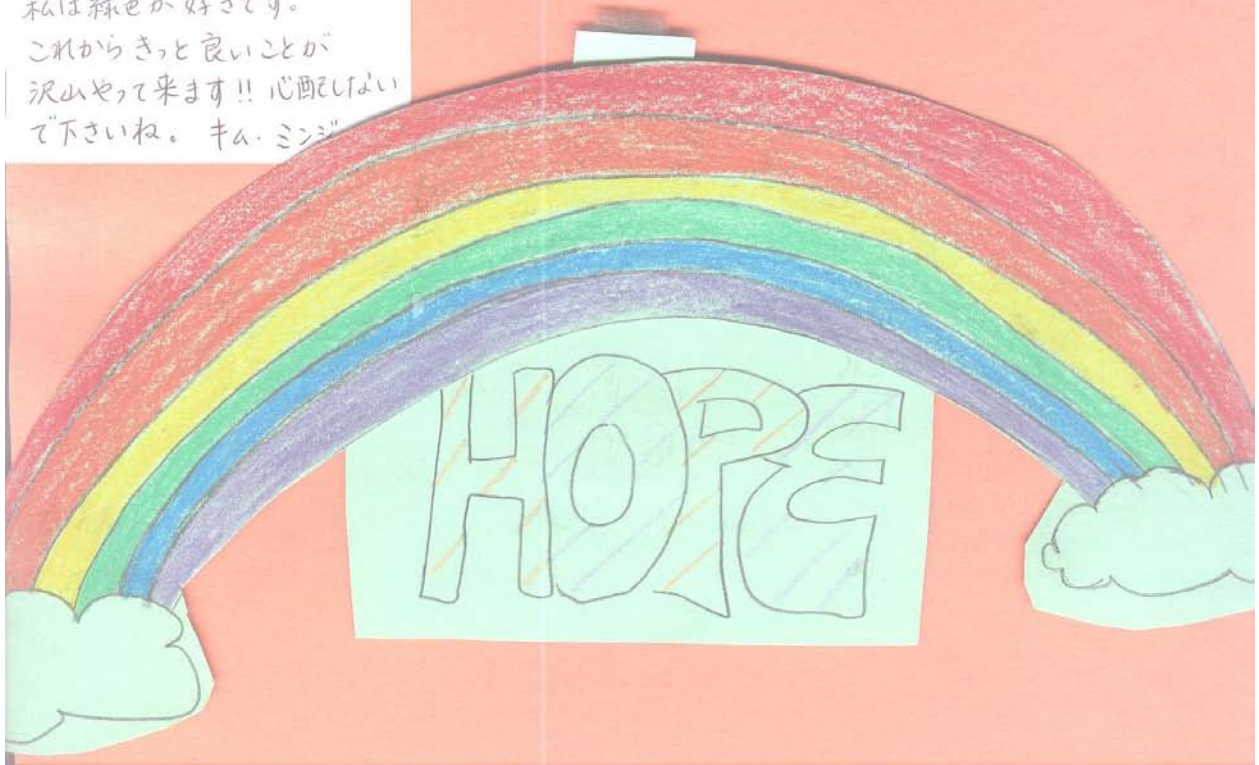
今回の大惨事にお見舞申し上げます。でも、心配しないで下さい。私達は皆さんのために祈ります。心配しないで下さい。きっと神様が守って下さいます。あなたは何かですか？私はこの4月で11才になります。好きな色は何ですか？私は緑色が好き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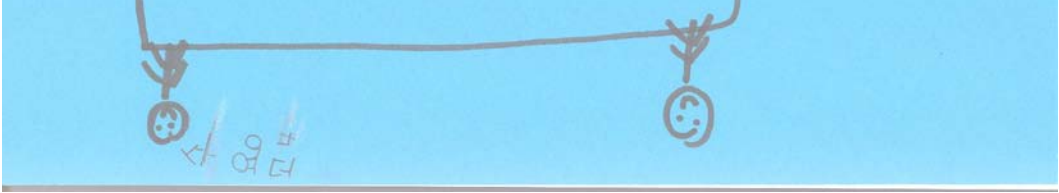
これからきっと良いことが沢山やって来ます!! 心配しないで下さいね。キム・ミンジ

Sincerely,

Julia Kim

(From St. Andrew Kim, 김민지)
(홍무반) (Korean School)





From: Saint Andrew Kim
Korean School

